

군산공항 새단장, 공항활성화 견인

25억원 투입... 대합실·화장실·유아휴게실 등 이용시설 확충

군산공항의 쾌적한 탑승환경 조성과 항공기 증편 추진 등 공항 활성화 위해 유관기관이 머리를 맞댔다. 전북도에 따르면 군산공항의 쾌적한 탑승환경 조성과 공항 이용객의 편의 제공을 위해 여객터미널 새단장에 25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군산공항 여객터미널은 1992년 준공 후 25년이 지나 시설이 노후화되고 대합실과 화장실 등 편의시설이 협소해 그동안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여객터미널 시설개선은 대합실, 화장실, 유아휴게실 등 여객이용시설 확충(161㎡)과 터미널 내·외부 리모델링 및 증축(91㎡)을 추진하며, 이번 새단장을 통해 '친절한 공항' 다시 찾

고 싶은 공항'으로 거듭나 공항활성화를 견인할 계획이다.

여객터미널 리모델링사업은 공항관리처가 주관하고 한국공항공사에서 추진하며, 3월중 공사 착공해 12월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또한, 군산공항 유관기관은 항공기 증편 등 군산공항 활성화를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전북도, 군산시, 서울지방항공청, 한국공항공사, 이스타항공 관계자들이 간담회를 개최하고 여객터미널 리모델링 추진계획, 항공기 증편 등 공항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이들은 국토부에서 진행중인 '새만금 신공항 항공수요조사 용역'과 관련 전북권 항공수요 확대논리

개발에도 긴밀하게 협조해 나가기로 했다.

현재, 군산공항에서는 이스타항공과 대한항공이 제주노선을 주 28회 왕복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탑승객은 23만2,132명으로 2015년 20만5,438명 대비 13% (26,694명)가 증가해 탑승률이 88%가 넘어서 1일 왕복 4편 운항으로는 항공수요 확대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군산공항 활성화를 위해서는 추가 증편운항이 절실한 상황으로, 전북도와 군산시는 이스타항공측에 증편운항 검토를 강력히 요청했다.

전북도와 군산시는 군산공항 활성화를 위해 '전라북도 지방공항이용 항공사업자 및 여행사 재정지원 조례

제3조'에 의거 매년 여행사 승객유치 지원금과 항공사 착륙료를 지원하고 있다.

올해도 승객유치를 통한 탑승을 제고 및 감편운항 방지를 위해 승객유치 지원금 7,000만원과 항공사 착륙료 2억3,000만원(도 50%, 군산시 50%)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제는 전북도민의 제주관광 수요확대가 아니라 '전북방문의 해'를 맞아 전주 한옥마을, 군산 근대문화역사지구 등 도내 관광지를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로 제주도민과 초·중·고 수험생 등 유망계층의 관광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군산공항이 활성화되면 전북권 항공수요 뿐 아니라 새만금 신공항 신축추진 당위성도 확보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전북도, 산업분야별 수출지원기관 간담회 개최

도내 수출기업 애로 사항 청취·신속 대응 나서

전북도는 22일 도청 12층 회의실에서 진흥 정무부지사 주재로 통상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산업분야별 수출지원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도와 기업, 산업분야별 10개 수출지원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사드배치 및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른 최근 수출동향을 점검하고 기업 애로사항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식품제조업체 표기업 대표는 "중국 수출을 위해 오랫동안 준비했는데 통관절차가 지연돼 어

려움을 겪었으나 뒤늦게 통관이 해결된 바 있다"며 사드 배치로 인한 표면화되지 않은 무역보복을 걱정했다.

또 소규모 무역을 통해 중국에 화장품 등을 판매하던 A기업대표는 "중국 백화점 입점을 진행했으나, 2016년 이후 바이어들이 중국 당국의 위생허가 강화, 중국인들의 협한 분위기 확산 등을 이유로 한국화장품의 상담을 기피하고 있어 중국 진출이 어렵다"고 토로했다.

한국무역협회 김영준 전북본부장은 "전북 지역의 중국 수출이 지난해

36.8%로 크게 감소했지만, OCI와 백광산업의 수출 관할지 변경에 따른 기술적 요인을 제외할 경우 9.8% 성장해 아직까지 통계상 큰 수출 감소는 나타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기업 현장에서 걱정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일부 품목에 통관 지연 등 비관세 장벽이 높아지고 있는 것을 볼 때, 도내 기업을 대상으로 대중국 진출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역량강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참석한 수출지원기관들은 글로벌 통상 위기와 관련 도내 기업의 수출상황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지난 해 출범한 전북수출지

원기관협의회를 중심으로 수출기업의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또한 안정적인 수출기반 확보를 위해 중국, 미국 시장에 편중된 수출시장을 동남아, CIS(독립국가연합), 남미 등 신흥지역으로 확대하여 수출시장 다변화를 통해 수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분야별로 다양한 지원시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진흥 정무부지사는 "분야별로 현장에서 청취한 수출기업의 숨은 애로를 공유하고 해결하는데 수출지원기관들이 힘을 모은다면 도내 기업들이 어려운 통상 환경을 극복하고 올해 66억분의 전북수출 목표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전북도-경제통상진흥원, 디자인 지원사업 추진

전북도와 전북경제통상진흥원은 도내 중소기업의 이미지 강화와 제품 등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디자인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도내 중소기업 40업체를 선정해 디자인 개발 지원금 1억 6,000만원을 지원하게 된다.

선정된 중소기업은 기업 로고와 제품, 인쇄물, 포장물 분야 가운데 한개 분야의 디자인 개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라 올해 소포장 디자인 개발 지원분야를 신설해 지원사업을 시작한다.

이 사업은 디자인 전문회사와 인력

를 활용해 맞춤형 디자인 개발을 중소기업에게 지원하는 것으로 디자인 개발을 희망하는 도내 소재 중소기업을 평가위원의 정성, 정량 평가를 거쳐 선정하며 선정된 업체는 포장, 인쇄물, BI/CI 중 1개 분야에 대한 개발비 70%인 300만원~500만원까지 지원한다.

기존 상·하반기 별도로 모집하던 방식에서 연간 1회 모집으로 개발기간을 충분히 확보해 선정된 중소기업에서 만족할 수 있는 디자인 개발이 나올 수 있도록 했다.

/인재용 기자

농어촌공사 유한식 상임감사, 열린대화 시간 가져

한국농어촌공사 유한식 상임감사는 22일 전북분부를 방문해 직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렴 특별교육 및 직원과의 열린 대화 시간을 가졌다.

유한식 상임감사는 감사철학 특별강의에서 공직자로서 최고의 가치와 덕목이 바로 '청렴'임을 강조하면서,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사회 실현에 전북본부 직원들이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이러진 직원과의 열린 대화 시간에서는 농어민과 공사의 쌍방향 소통을 통해 업무 효율성을 높여 행복한 농어촌을 만들어 가자고 말했다.

이날, 오후에는 고창군 상하지구 농촌테마공원사업 현장을 방문해 자연과 사회자원을 토대로 조성된 친환경 체험공간 현장을 확인하고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인재용 기자

구독문의 288-9700

기금본부 전북이전 흠집내기 '안될말'

전북상협, '논두렁 본부' 등 비하 발언 보도에 반발

전북상공회의소협의회가 최근 일부 언론에서 오는 25일 전북혁신도시 이전을 앞두고 있는 기금운용본부에 대해 '시골 촌구석', '논두렁 본부' 등 원색적인 비하 발언을 일삼으며 기금운용본부의 전북이전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등의 흠집내기 식 보도에 분노를 표했다.

전북상협은 "이미 전북혁신도시에 입주한 많은 공공기관들이 전북에서 우수한 인재들을 수시로 채용하고 있고 수도권과도 1시간 전후로 연결되는 KTX가 수시로 왕복하는 등 정주여건도 훌륭해 일부 중앙언론에서 제기하고 있는 인력역탈과 신규채용의 어려움은 아무런 문제가 안된다"고 밝혔다.

또한 "투자금융 인프라 부족과 관련해서는 이미 세계 3대 메이저 연금 규모를 자랑하는 기금운용본부 자체가 가장 큰 인프라임을 감안할 때 이러한 주장은 흠집을 내려는 의도밖에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기업인들은 일부 중앙언론의 주장대로라면 우리나라 금융허브는 반드시 수도권이나 여의도

가 돼야 한다는 논리"라며 "이러한 논리가 지역균형발전을 가로막고 수도권 집중만 가속화시켜 장기적으로 국가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는 위험성은 간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총 3,000억 달러의 자산을 운용하는 미국 최대의 연기금인 '캘퍼스'가 전주인구 65만 보다 적은 인구 47만의 소도시 캘리포니아주 새크라멘토에 위치해 있고, 우리나라 포털사이트의 양대산맥중의 하나인 '다음'의 본사를 지방에 둘 만큼 정보화와 소통의 공간이 다양화되고 있어 도시규모를 입지경쟁력으로 평가하는 것은 결코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선홍 전북상협회장은 "우리 지역 상공인 모두는 200만 전북도민과 함께 기금운용본부 전북이전을 음해하고 방해하는 여타한 행위도 용납할 수 없다"며, "기금운용본부의 전북이전을 기폭제로 전북혁신도시가 세계 금융허브로 발돋움하는데 모든 역할과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인재용 기자



전북개발공사, 행복을 짓는 장학금 수여식

전북개발공사는 공사 강당에서 공사에서 운영·관리중인 임대주택 입주민 자녀를 대상으로 '행복을 짓는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전북개발공사 임대주택 입주민 자녀가 훌륭한 지역인재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전주와 익산 지역에 거주하는 중·고등학생 19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장학증서 교부를 통해 학생들이 자긍심을 갖도록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달식에서 고재찬 사장은 "장학금 지원을 통해 신학기를 맞아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 부모에게 힘이 되어 주고 싶었다"며, "우리 공사는 청소년들이 훌륭한 지역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갈 것"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인재용 기자

전라북도 | 2017 무주 WTF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세계는 무주태권도원으로, 태권도로 하나되는 지구촌!

2017 전북 무주 WTF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6.24-30 (7일간)